

변신을 읽고

‘변신’, 몇 해 전부터 친구들이 이 책을 읽는 모습을 꽤 여러 번 보았다. 하지만 나는 카프카라는 독일작가의 이름대문인지 제목부터가 매우 심오할 것 같고 어려워보였다.

변신이라는 것이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녔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말 소설 속에서 인물이 변신을 하는 데에 매우 놀랐고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글을 읽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 씁쓸하면서도 이상 깊었다.

주인공 그레고르가 하룻밤 사이에 벌레로 변해버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수업시간에 배웠던 ‘원고지’라는 작품이 떠올랐다. 그 작품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완전히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 있다. 이 작품에서도 그레고르는 열심히 돈을 번다. 하지만 벌레가 된 뒤로는 돈을 벌지도 않고 대화도 되지 않는 그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이 글이 1900년대 초에 쓰인 글임에도 너무나도 오늘날의 현실문제와도 흡사하다. 그레고르가 겪는 벌레 이전의 삶은 전형적인 현대인의 생활상인 듯하다. 그리고 벌레로서의 삶은 그 현대인들의 내면에 존재한 소외됨 같은 것을 끄집어내었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는 그레고르와 가족들의 의사소통의 단절처럼 개개인이 모두 소외되어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친하고 서로 이해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즈음 모두가 아는 일일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은 이기적인 사고에서 비록 외었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에게 이익을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급적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한다. 이 소설에서는 심지어 가족들마저 그러하다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아도 마지막 휴식처와 지지자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가족마저도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소설 속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 중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이라 생각했다. 뒷 부분에서 그레고르가 죽은 후부터는 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벌레 그레고르라하더라도 자신들의 아들, 오빠가 죽었는데……. 가족들은 눈물을 흘린 듯은 하지만 아버지는 하느님께 감사하자고 말했고 가족들은 오히려 행복한 나들이를 떠나는 듯 한 모습이었다. 아니,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다.

그레고르가 죽고 나서 가족들은 그가 계속해서 먹지 않아 매우 말라 있었음을 발견하는데 그레고르의 죽음은 먹지 않았기 때문도 등에 박힌 사과로 인한 아픔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그저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그레고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가족들 자신들이었다. 그들은 벌레로 변한 그의 모습보다도 그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음에 그를 골칫덩어리로 여기면 또한 사라져야 할 존재로 여긴다. 그러한 가족들은 냉대에 그레고르는 몸의 아픔보다 소통의 단절과 소외감으로인 한 마음의 병이 심해져 죽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가족들에게서 비록 되었으니 말이다.

이 작품은 산업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친 인간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매일 일이나 공부 등에 과묵히 쳇바퀴를 쉴 새 없이 돌리는 다람쥐처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피폐해진다. 또 이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소외시키며 자신 또한 소외당하며 살아간다.

오늘날을 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라고들 한다. 이작품은 산업사회에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날에 상당부분 적용된다. 그것은 아마도 아직까지 산업사회의 모습이 더욱 많으며 정보화 사회에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나 역시 오늘날을 사는 인간으로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야한다고 말하게 된다. 참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 또한 살면서 그레고르와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욱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고 관심을 갖으며 배려해야 하겠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 지는 길이며 또 내가 행복해 지는 일일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이나 수업시간에 그러려니 하고 배웠던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실제 생활에 접목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